

# 무주덕유산리조트, 가을 여행지로 각광

가을 숙박패키지로 가성비 여행 · 관광콘도라 주말 예약제도 시행 · 황화 코스모스 만발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가을 풍광을 자랑하며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에는 제철을 맞은 황화 코스모스가 군락지를 이루며 가을 정취를 뽐내고 있다. 단풍철이 시작되는 10월부터는 가을 여행객들의 발길이 더욱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가성비 있는 가을 여행을 선사하기 위해 추계 패키지를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추계 패키지는 숙박과 조식을 제공하는 '조식 패키지', 숙박과 조식에 관광콘도라 이용까지 더한 '무주패키지' 등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기존 가격 대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패키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더 편리한 가을 산행을 위해 가을 관광콘도라 주말예약제도 시행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는 관광콘도라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주말·공휴일에 한해 콘도라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광 콘도라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4번째로 높은 덕유산의 설천봉(해발 1,520m)까지 15분만에 오를 수 있다. 덕유산 정상인 향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가을 풍광을 자랑하며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에는 제철을 맞은 황화 코스모스가 군락지를 이루며 가을 정취를 뽐내고 있다.

적봉(해발 1,614m)까지는 도보로 20분정도 가벼운 산행을 하면 된다.

관광콘도라 주말 예약은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서 탑승일 기준 14일 전부터 1인 5매까지 가능하다. 탑승일자와 시간을 지정 예약하면, 예약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예약확정 문

자가 발송된다. 당일 탑승 예약시간 30분전까지 매표소에서 예약 문자를 제시 후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 후 이용하면 된다. 강풍이나 낙뢰 등의 기상상황에 따라 당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의료원은 지난 2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예술극장 두드림 힐링 콘서트 'DREAM-打' 공연을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 남원의료원, 찾아가는 예술극장 공연

다채로운 볼거리로 세대간 공감 · 소통 공연콘텐츠 지원 · 힐링 시간 선사

남원의료원은 지난 23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예술극장 두드림 힐링 콘서트 'DREAM-打' 공연을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에 대해 의료원측은 퓨전 타악 난타공연 및 퓨전 관소리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세대간 공감·소통 공연콘텐츠를 지원, 공연 기회가 적은 거리예술가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환우와 내원객 및 직원들에게 공연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고 자랑했다.

한편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입원 생활에 지친 환자와 가족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싱가포르 해외대학생 팸투어 성료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전북관광 홍보를 위해 전주대학교,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교 교와 연계해 해외대학생 팸투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28일 재단에 따르면 국내외 대학교들과의 연계 팸투어를 통해 해외대학생들의 전북관광 인지도 제고와 전라북도 홍보 등을 추진, 이번 무주 관광지들을 방문했다.

지난 24일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대학교 학생들은 머루의인 동굴 방문을 시작으로

태권도원 시설물 및 공연 관람, 청사초롱 만들기 체험 등 무주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했다. 이에 참여 학생들은 본인의 SNS를 통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마케팅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천선미 국장은 "대학생의 시각으로 바라본 전라북도 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모객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 김제시 윤승업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양수경의 '사랑하세요' 공연

김제시는 윤승업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양수경의 '사랑하세요' 공연이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김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에서 후원하는 2022년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취약지역의 균형 있는 문화발전 토대 마련 및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지역활력 문화공연이다.

대중 음악 가수인 양수경과 윤승업 지휘자가 이끄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배경으로 △사랑은 창밖의 빔을 같아요 △그대는 △외면 △사랑은 차가운 유혹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명곡을 양수경의 감

성 가득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선율로 재해석하고 바리톤 임준식과 가수 바비킴의 무대는 양수경의 서정적인 무대와는 또 다른 매력을 더하며 공연을 풍부하게 만들어 시원한 가을 밤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 대상은 김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예매는 9월 28일 오전 8시부터 선착순 현장 배부한다. 김제시민을 위한 무료 공연으로 공연 10분 전까지 객석으로 입장하지 않을 경우 배부받은 관람권은 자동 취소되며, 먼저 도착한 관람 희망자에게 우선 배부된다. 또한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 관소리 보유자 故 박송희 '무형유산 기증자료집' 발간

국립무형유산원, 유족 기증 자료 정리 발간... 스승 故 박록주 관련 자료도 수록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관소리 보유자 고(故) 박송희 유족이 기증한 자료를 정리한 '무형유산 기증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립무형유산원에 따르면 인간문화재 삶의 흔적이 담긴 무형유산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해 기증자료집으로 발간해 오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평생을 소리에 헌신한 박송희 보유자의 유족이 기증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그 스승인 관소리 보유자 고(故) 박록주 관련 자료도 함께 수록했다.

이번 기증자료집에는 박송희 보유자의 1950년대 여성국극 사진을 비롯해 스승 박록주 보유자와 함께 찍은 사진, 각종 관소리 창본(唱本)과 공연 홍보물, 공연에서 실제 착용한 복식 등 소리꾼으로서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자료 766건을 실었다.

특히 '홍보가' 창본과 LP, 카세트테이프는 과

거에 여성이 재담을 할 수 없던 시절이라 박록주 보유자에게 전수받지 못한 '놀이 박 타는 대목'을 보완해 완성해 간 과정을 보여주고, '숙영낭자가' 창본과 마이크로 카세트테이프는 '정정령-박록주-박송희'로 뒷부분 일부만 전해지던 '숙영낭자가' 사실을 완결해 한 시간 소리로 만든 흔적을 보여주는 자료로 가치를 더하고 있다.

한편 기증자료집은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부안노을아트페스티벌, 국내 최초 모래조각 창시자 최지훈 작가 모래성 작품 전시

부안노을아트페스티벌 개최를 맞아 변산해수욕장에 모래조각 작품이 전시 된다.

전시된 모래조각 작품은 부안노을성이라는 주제로 가로 10미터, 높이 8미터에 달하는 대형 모래조각으로, 국내 최초 모래조각 창시자 최지훈 작가가 8일간의 제작기간을 통해 완성하였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변산해수욕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부안의 명성에 걸맞게 모래리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이용해 부안만의 노을, 부안만의 자연이 모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인생 한컷을 연출하는 장소로 벌써부터 찾는 이들의 카메라를 채우고 있다.

부안노을아트페스티벌(부안군대표축제추진위원회)은 '부안! 노을을 느끼다'란 주제로 부안 변산해수욕장에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며, 축제기간 가족단위 체험객이 직접 참여하는 모래조각 체험은 1일 1회 현장접수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